

■ 호남출신 조폭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건설 폭력’이 주요 자금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득원 조사

서울 강남 립살롱에 대거 진출

호남출신 조폭폭력배들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것일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9일 발표한 ‘조직폭력배의 소득원에 관한 연구’(박경래 연구위원, 손석천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재소자 설문 및 심층면접 조사에 따르면 호남출신 조폭들은 조직 내 서열에 따라 ‘별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

“조직에서 용돈도 안 준다. 조직 생활 6년 동안 만원 한 장 못 받아 봤다.”(A씨·20대·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배치된 업소에서 생활비를 받아 생활한다. 한 달에 약 100만~150

만원 정도씩 받았다.”(B씨·20대·살인) “선배랑 풍족하게 다녔었다. 카드도 몇 개 있었다.”(C씨·20대·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주먹을 행사하거나 돈을 버는 방법도 조직이 진출한 업종에 따라 달랐다. 행동대원 C씨는 “위력고사만 몇 번 하고 바람잡으면 선배가 수급했다. 바람잡이 벌거 없다. 영입하는 가게에 덩치 큰 몇 사람들 열 몇 명 앉았으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

는다”며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도 손님으로 온 건데...”라고 반문했다.

범죄단체 구성·활동 혐의로 수감 중인 30대 D씨는 “입찰하는 과정에서 협박 등을 할 수 있고, 건설을 둘러싸고 이런 다툼도 있다. 검찰이나 경찰에 드러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고 말해 ‘건설 폭력’이 주요 자금줄임을 암시했다.

서울에 진출한 호남출신 조폭들이 강남 쪽에 주로 진출했다는 진술

도 나왔다. “림살롱을 직접 운영한다. 동업자는 조직이 아니라 평상시 알고 지내던 일반인이다. 본인이 30~50%를 투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폭력배들은 조직 간에 ‘큰 전쟁’이 없는 이유에 대해 “검찰에서 바람만 세게 불면 우리는 날아가기 때문에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광주지검이 관리하고 있는 광주·전남 폭력조직은 국제 PJ·신양 OB·플라스·총장OB 등 22개 조직 1천400여 명이다. 이들은 성인오락실과 유흥업소 등의 운영·관리, 보험사기 범죄, 건설사업 등 이권 개입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조폭의 사업분야

사업분야	유출률(%)
유흥업소·오락실·게임장 등 직접운영	67.0
유흥업소·오락실·게임장 영업보호	60.6
건축·부동산개발, 시행사업	48.6
시재업, 채권추심업	41.3
도박장 개설, 사설 경마	32.1
입찰, 경매 등	32.1
연세사업	29.4
직접소개, 용역경매업	27.5
노점상 등 영세영업 보호	14.8
농수산물, 관산물 등 유통업	9.2
기업인수	8.3
주식, 증권	8.3
기타	4.6
악물유통	0.9

*자료제공: 한국형사정책연구원(복수응답)

분야는 ▲유통(34.5%) ▲오락(32.2%) ▲관광(13.8%) ▲요식(9.2%) 등이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9일 오후 함평군 대동면 자연생태공원에서 열린 '글로벌 추임새운동 영·호남 화합 한마당 행사'. '남을 배려하고 돕자'는 취지의 이날 행사에서 이석형 함평군수·김형열 대구 수서구청장·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등 기관·단체장과 참석자들이 '2007 희망의 나비' 2천7마리를 날리고 있다. /함평=남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나원침 (7041) 김장두



평택선도저의 중심특권을 누리는데 3,630 최대연계!
 (평택선도 4+1구분 100% 최고 연계)
 수원선도시 피오레
 1인당 062-367-9000

“조폭 한달 수입 4백만원”

유흥업소·오락실 등 평균 3.9개 업종에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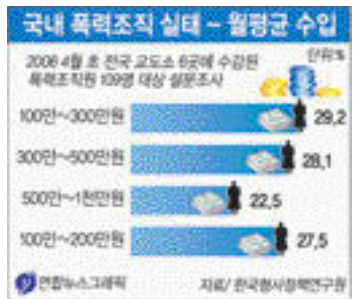
국내 폭력조직은 유흥업소·오락실 등 평균 3.9개 업종에 진출해 있으며 조직원의 월수입은 4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조직원 숫자에 따른 조직 규모 50명 미만 29%, 50~100명 50%, 그리고 100명 이상이 30%였다. 지역별로는 57개(52.3%)가 수도권과 대도시를 기반으로 하고, 조직 시기는 1970년대 15개, 1980년대 52개,

1990년대 30개였다. 대표 사업의 연간 수입 규모는 1억~5억원이 30.0%로 가장 많았고 10억원 이상도 18.9%나 됐다.

조직원 월 평균 수입은 ▲100만~300만원 29.2% ▲300만~500만원 28.1% ▲500만~1천만원 22.5% 등이었다. 조직 일을 하고 받는 대가는 100만~200만원이 27.5%로 가장 많았다.

조직원의 64.4%는 ‘국내 조직 중



해외에까지 사업 기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데 동의했다. 사업

▲‘명동 번개’ 박씨는 누구? =목포출신으로 서울 K대 체육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명동·을지로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지난 89년 1천여 명의 폭력배들을 규합, ‘신우회’라는 전국 규모의 폭력조직을 결성해 회장으로 활동했다.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2003년 10월 국외로 출국해 도피생활을 하다가 최근 귀국해 검거됐다.

태권도회장 선거 방해 전남 조폭 ‘代父’ 구속

前 협회 전무 활동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29일 조직원 등을 동원해 대한태권도협회 임시이사회 및 협회장 선거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협회

전무이사자 전남 폭력조직 대부인 박모(6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명동 번개’로 통하는 박씨는 2001년 10월 태권도협회 김운용 회장이 임시대위원 총회에서 자신을 해임하려는 발언을 하려고 하

자 태권도인 100여 명을 동원해 회의장에 난입, 고함을 지르고 김씨의 차량을 부수는 등 이사회를 방해한 혐의다.

박씨는 또 이듬해 2월 태권도협회

신인 회장 선거에서 폭력배 등 300여 명을 동원해 태후보 지지자들의 선거장 출입을 봉쇄한 채 투표를 진행해 자신이 지지하는 회장 후보를 당선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세관, 120억대 환치기범 붙잡아

목포세관은 29일 개인 환치기 계좌를 개설해 놓고 122억원 상당을 ‘환치기’ 한 최모(32)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세관에 따르면 중국에서 인테리어업을 하는 최씨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4년 11월9일까지 5년여 동안 개인 환치기 계좌를 통해 2천832회

걸쳐 122억원 상당의 환치기 영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최씨는 결제대금을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할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해 반드시 송금해야 하는데도 개인 환치기 계좌를 개설해 불법 송금을 왔다”고 밝혔다.

목포=이상희기자 lsh@kwangju.co.kr

김양식장에 공업용 염산

업자 등 2명 검거

여수 해양경찰은 29일 김 양식 어민들에게 공업용 염산 8천ℓ(20ℓ 용기 400통)를 공급한 화학차 운전사

김모(41·경북 성주시)씨와 알선책 김모(46·고흥군 도화면)씨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은 또 염산을 양식장에 사용하려 한 박모(32·고흥군 도양읍)씨 등 여수 2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순천 교통사고 6명 부상

29일 오후 1시께 순천시 생목동 1떡방앗간 앞 사거리에서 순천교통 시내버스(운전자 송모·52)와 마티즈 승용차(운전자 조모·62)씨가 충돌,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

주유 배달원 괴잉 흥보 ‘주거 침입’

○입사한 지 한 달 남짓 된 주유소 직원이 흥보의욕에 넘쳐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입건.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주유소 직원 L(27)씨는 지난 28일 밤 10시50분께 북구 삼각동 임모(60)씨 집 안 기를 보일러에 석유 주전 전화 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붙이다가 깨닫는 소리에 밖으로 나온 집 주인에게 붙잡혔다는 것.

○L씨는 “스티커를 보일러에 붙여 놓으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무심코 담을 넣었다”고 진술.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광주출판진흥회
 대표전화 1588-7557
 팩스 번호 515-7800

저렴한 가격에 출판사들
 공짜로 이점이 사라진다!

광주출판진흥회 중국/일본
 상해/장가계/소주 3년
 -799,000-

상해/장가계/소주 4년
 -770,000-

상해/장가계/소주 5년
 -399,000-

상해/장가계/소주 6년
 -660,000-

상해/장가계/소주 7년
 -279,000-

경주-태권도 태권기 회회
 태권도인 100여 명을 동원해 회의장에 난입, 고함을 지르고 김씨의 차량을 부수는 등 이사회를 방해한 혐의다.

태권도회장 선거 방해
 전남 조폭 ‘代父’ 구속

태권도회장 선거 방해
 전남 조폭 ‘代父’ 구속

구분	내역	금액
A	1. 1000000원	1,000,000
	2. 2000000원	2,000,000
	3. 3000000원	3,000,000
	4. 4000000원	4,000,000
B	1. 1000000원	1,000,000
	2. 2000000원	2,000,000
	3. 3000000원	3,000,000
	4. 4000000원	4,000,000
C	1. 1000000원	1,000,000
	2. 2000000원	2,000,000
	3. 3000000원	3,000,000
	4. 4000000원	4,000,000